

국별 리포트

# 아제르바이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0

## I. 일반개황

면적	87천 km <sup>2</sup>	G D P	530억 달러 (2015년)
인구	9.4백만 명	1 인 당 GDP	5,440달러 (2015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zerbaijani Manat(AZN)
대외정책	터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EU와의 관계 다소 악화	환율(달러당)	1.0 (2015년)

- 1991년 독립이후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 대통령에 취임한 알리에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에 대형 유전,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고, 서방에 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터키로 연결되는 송유관, 가스관을 건설하고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 친서방정책을 추진하며 EU와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경제부문에서 협력 관계를 맺어 왔으나, 최근 EU 의회가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반정부 인사 구금 등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과 EU의 관계가 악화됨.
-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정치적,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대외 관계와 국내사회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경제성장률	2.2	5.8	2.0	1.1	-2.5
소비자물가상승률	1.0	2.5	1.5	4.1	12.1
재정수지 / GDP	3.8	1.4	-0.4	-7.9	-4.0

자료: IMF, EIU

#### □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2015년 경제성장률은 1.1%로 하락

-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석유와 가스의 비중은 수출의 95%, 재정의 70%, GDP의 40%에 이르고 있음.
- 카스피해 지역의 새로운 유전, 가스전의 개발 부진과 생산 정체로 2010년 이후 원유 생산량이 감소 추세이며, 가스 생산량도 정체 상태임.
  - 아제르바이잔 전체 원유생산의 80%를 차지하며, 매장량 50억 배럴의 ACG(Azeri-Chirag-Guneshli) 유전의 생산량 정체로 인해 원유 생산량은 2010년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 추세임.
  - 최대 가스전인 Shah Deniz 2단계 가스전의 가스 생산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가스 생산량이 연 160억 m<sup>3</sup>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제유가 급락과 석유, 가스의 생산량 정체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2.5%로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4.1%로 전년 대비 상승

- 2015년 12월 환율제도를 기존의 페그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 마나트화 가치 유지를 위해 페그제를 유지하고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에 외환매각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어 변동환율제를 도입함.
  - 환율제도 변경 직후 마나트 환율은 달러당 1.04 마나트에서 1.55 마나트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16년 2월 현재 달러당 1.63 마나트를 기록하고 있음.
- 마나트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4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1.5%에서 2015년 4.1%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 12.1%로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앙은행은 환율 하락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에 대응하여 2016년 2월 15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3%에서 5%로 인상하였음.

## □ 재정수지 적자폭 크게 확대

- 에너지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4년의 -0.4%에서 2015년 -7.9%로 크게 높아졌으며, 2016년에는 -4.0%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

-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총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에너지 국제가격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 서비스업 및 건설 부문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비에너지 부문과 농업은 투자 부진으로 낙후되어 있음.

#### □ 은행 부문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 고조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16년 1월 말에 최소자본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Bank of Azerbaijan, NBC Bank를 비롯한 7개 은행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였음.
  - 마나트화 환율의 상승으로 외화부채를 보유한 은행들의 비용이 상승하여 은행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추가 면허 취소와 은행간 합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면허가 취소된 은행의 예금 가입자들은 예금보험기금에 따라 1인당 30,000 마나트까지 보상을 받게 됨.

### 나. 성장 잠재력

#### □ 부존자원 개발 및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 보유

- BP의 자료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은 2014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 70억 배럴(세계 확인매장량의 0.4%)에 달하는 원유와 1.2조 m<sup>3</sup>(세계 확인매장량의 0.6%) 규모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독립 이후 BP 등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카스피해 해상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ACG(Azeri-Chirag-Guneshli) 유전과 Shah Deniz 가스전을 개발하였음.
  - 아제르바이잔 최대의 Shah Deniz 가스전은 BP, Statoil이 각각 25.5%, SOCAR(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 Lukoil, Total, NIOC 등이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으로 2018년부터는 연간 160억 m<sup>3</sup>의 가스 추가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 유럽 시장에 대한 에너지 공급 확대 추진

- 유럽은 가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유럽 국가들은 터키 및 유럽으로의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출을 위해 TANAP (Trans-Anatolian Pipeline) 가스관을 2015년 4월부터 건설하고 있음.
  - TANAP 가스관은 Shah Deniz 가스전에서 터키로 연결되는 가스관으로 BP 12%, 터키 BOTAS 30%, 아제르바이잔 SOCAR 59%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은 유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스 수출통로를 확보하게 됨.

## 다. 정책성과

### □ 에너지 수출소득을 활용한 경제, 사회 인프라 부문 투자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에너지 수출소득으로 국부펀드(SOFAZ: State Oil Fund of Azerbaijan)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펀드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국부펀드 기금은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2015년 10월 1일 기준 연초대비 6.38% 감소한 347.4억 달러를 기록함.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부펀드의 자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 사회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프라 개발로는 Baku-Tbilisi-Kars(BTK) 철도, Samur-Absheronaz 관개시설, Baku-Qabala-Oguz 수도관 설비 등의 건설이 있음.
  - 사회부문의 인프라사업으로는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분쟁으로 발생한 100만 여명의 난민 정착 지원, '2007-10 청년해외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음.

### □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는 정유공장, 가스 처리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가 포함된 총예산규모 170억 달러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 첫 단계 투자 규모는 약 70억 달러로 예상되며, 현재 일본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는 2022년~2023년 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연간 가스 처리 능력 120억 m<sup>3</sup>, 원유 정제능력 850만~900만 톤,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 100만 톤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3. 대외거래

#### □ 경상수지는 적자 전환되어 GDP 대비 -0.3%를 기록

-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GDP 대비 높은 비율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원유 생산량의 감소에 따라 점차 낮아져 왔음(2012년 21.8% → 2013년 16.4% → 2014년 14.1%).
- 2015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는 전년도의 14.1% 흑자에서 -0.3%로 적자 전환하였음. 이 비율은 2016년에도 국제유가 약세 지속에 따라 3.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lt;표 2&gt;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sup>e</sup>	2016 <sup>f</sup>
경 상 수 지	1,499	1,205	1,043	194	173
경 상 수 지 / GDP	21.8	16.4	14.1	-0.3	3.7
상 품 수 지	22,181	21,382	18,900	8,000	10,800
수 출	32,374	31,702	28,260	16,382	18,063
수 입	10,193	10,321	9,332	8,414	7,508
외 환 보 유 액	11,277	14,401	14,647	8,180	-
총 외 채 잔 액	11,697	13,970	16,090	17,447	18,926
총외채잔액/GDP	17.0	19.0	21.7	27.3	29.5
D. S. R.	5.3	7.3	8.1	10.7	12.7

자료: IMF, OECD, EIU.

## □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함에 따라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

-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외환보유액은 2014년 146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약 82억 달러로 급감하였음.

## □ 총외채잔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채상환비율도 상승 추세

- 총외채잔액은 2014년 160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7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7.3%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외채 증가와 수출액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채상환비율(D.S.R.)도 점차 상승하여, 2015년에는 전년대비 2.6% 포인트 상승한 10.7%를 기록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알리에프 대통령이 2003년 이후 계속 재임

- 2003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알리에프 대통령은 2009년 10월 3선 금지 헌법조항 개정을 통해 2013년 10월 대선에서 3선에 당선되었으며, 201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2015년 11월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는 반정부 인사 투옥 등에 항의하여 야당이 선거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거를 통해 여당이나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의회가 구성되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정부는 반정부 인사 및 단체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지방에서 시위 발생

- 정부는 주요 반정부 인사에 대한 구속, 국제 NGO 단체의 자국 내 활동제한, 국내 NGO 단체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지원 금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6년 1월 일부 지방에서 시위가 발생함.

#### 3. 국제관계

##### □ 아르메니아와의 영유권 분쟁 등 갈등 지속

- 1990년대 초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계 다수 거주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지원군 간에 전쟁이 발발했으며, 1994년 휴전 이후 아르메니아가 이 지역을 실효지배하고 있음.
-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20

여년 만에 양측 간에 무력충돌이 재발하여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며, EU와의 관계는 악화

-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러시아의 아르메니아 지원, 아제르바이잔의 EU와의 협력 정책 등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되었으나, 최근 양국의 관계가 다소 회복되고 있음.
- 2015년 말 러시아에서 양국의 국방장관이 회담을 통해 2016년 군사협력 계획에 서명한 바 있음.
- EU는 동부 파트너십 정상회의 등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정치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동시에 인권 개선, 민주화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아제르바이잔은 EU와의 정치적 협력에 반대함.
- 2015년 9월 EU 의회는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문제와 반정부 인사 탄압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러한 EU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외채가 대부분이며,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일부 연체

- 2015년 9월 말 기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 승인 잔액은 단기 2.837억 달러, 중장기 40.09억 달러 등 42.92억 달러로, 이 가운데 단기 30만 달러가 연체되었으며 회수불능 상태임.

###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2 (2015. 3)	C2 (2014. 3)
OECD	5등급 (2016. 1)	5등급 (2015. 1)
Moody's	Ba1 (2016. 2)	Baa3 (2015. 12)
Fitch	BB+ (2016. 2)	BBB- (2015. 8)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lt;표 4&gt; 한·아제르바이잔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주요품목
수 출	282,067	308,444	269,573	122,865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수 입	87	3,361	54	3,404	기계, 전자기기, 가죽
합 계	282,154	311,805	269,627	126,269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교수립: 1992년 2월 23일(북한과는 1992년 1월 30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06), 외교관상호사증 면제협정,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협정(이상 '08),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2),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협정(이상 '13)
- 대 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2015년 12월말 누계): 21건, 530만 달러

## V. 종합 의견

- 2015년 경제성장률은 에너지 수출가격 하락으로 1.1%를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마나트화 가치 하락에 따라 상승추세이며, GDP 대비 재정수지는 -7.9%로 크게 악화됨.
-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1994년 휴전 이후 20년 만에 대규모 무력충돌이 발생함.
- 대외적으로 1991년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에너지 수출노선 다변화를 위해 EU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왔으나, 2015년에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소 회복된 반면, EU와는 인권 등의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됨.
- 2016년 초 Moody's, Fitch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정적자 폭 확대, 외화

보유고 감소 등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의 신용등급을 Ba1, BB+로 각각 한 단계씩 하향조정 하였음.

- 총외채잔액이 늘어나고 있고, 수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외채상환비율(D.S.R.)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선임연구원 조영관(☎02-6255-5759)

E-mail: ykj@koreaexim.go.kr